

한인여선교회, 전도부인으로 나서다

- 중국 조선족 전도부인 훈련을 다녀와서 -

장금자 장로/평신도 여성교사역자(deaconess)

중국 조선족을 위한 전도부인 훈련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중국 길림성의 한 교회에서 미 연합감리교회 여성국 후원으로 미 한인여선교회와 한국 감리교여성선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성국 선교사 유연희 목사님과 여성국 직원 Karen Prudente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인여선교회 최초의 전도부인 훈련

전도부인(Bible Women) 훈련 프로그램이 그동안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었지만,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조선족 훈련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 깊다고 하겠다. 또한 그동안 재정적으로만 지원하던 전도부인 프로그램을 한인여선교회가 직접 전도부인 훈련을 맡아 시작하게 된 것은 한인여선교회 선교 역사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 훈련은 작년 10월 한국 부평에서 열렸던 “아시아 기독교여성 지도력훈련” 프로그램의 결실중 하나다. 그곳에 참석했던 조선족 여성들이 그러한 훈련의 필요성을 절감, 여성국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언어와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한인들이 이 훈련을 맡게 된 것이다.

이 전도부인 훈련을 위해 올해 1월 뉴욕에서 여성국 주관으로 한인여선교회 지도자 17명이 훈련을 받았고 그 중 6명이 중국 선교에 자원한 것이다. 이 훈련의 목적은 조선족 여성 지도자들을 전도부인으로 훈련해 그들이 돌아가서 지역사회 여성들을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평탄하지 못한 출발

중국 선교는 3월 25일에서 4월 1일로 결정되었는데, 우리는 먼저 서울에 들러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훈련을 더 받고 중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출발 이틀 전 중국 당국으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기도 끝에 우리는 일단 관광객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로 했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준비해 간 자료, 책들은 모두 두고 개인 성경책 하나씩만 들고 가기로 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장춘시 국제공항에서 버스로 4시간 거리에 있는 길림성의 한 교회였다. 한국 여성교회와 여성국의 지원 아래 성전을 건축중인 이 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삼자교회’ 중 하나였다. 이 지역에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고 대부분 전도사님이나 평신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생활 가운데에도 그들의 믿음만은 매우 뜨거웠다.

초대교회를 연상시키는 예배 분위기

첫 날은 간단히 예배 보고, 밤 11시 반까지 위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말을 사용해서 그런지 중국에 왔다는 기분보다 한국에 온 기분이었다. 자정이 넘어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호텔에는 수세식 화장실과 공동

샤워장이 있었다.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선교를 떠난 우리들에게는 깜짝 선물인 썸이었다.

둘째 날은 일요일. 주일 예배를 조선족들과 함께 한국말로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설교 듣고, 감개무량하여 모두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모든 집회가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친교도 같이 하고 공부도 함께 할 수 있으니 눈치껏 하면 된다는 분위기였다. 처음 예상했던 백여명은 아니라도 삼사십 명의 각 교회 지도자들로 모인 알찬 지도자 교육 모임이 된 썸이다. 그들의 뜨거운 아멘 응답, 가라오께에 맞춰 손뼉치면서 부르는 찬양, 열기 가득한 예배 분위기는 마치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갔던 초대교회 신자들을 연상시켜 우리들을 감동시켰다.

셋째 날은 눈보라가 쳤는데, 인근의 조그마한 조선족 교회에 점심 초대를 받아 후한 대접을 받고 왔다. 그 곳 조선족들은 먹고 사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은 것 같았다. 조선족이 개발한 쌀이 아주 맛이 있어 부자들만 사 먹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강냉이 부스러기를 넣고 지은 쌀밥이 별미였다. 중국에는 한족이 제일 많고, 그밖에 55개의 소수 민족들이 어울려 산다.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은 조선족 자치구인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등 동부 3성으로 약 2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예로부터 지식을 존중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우수한 전통을 갖고 있는 조선족은 문화·교육면에서 다른 소수 민족보다 앞서 있다고 한다. 또 부지런히 일하고 잘 살아서 그동안 다른 민족들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요즘 한류로 인한 여파로 젊은이들은 모두 돈 번다고 한국으로 나가고, 짝 잃은 외로운 사람들의 방탕함으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청소년 문제가 생겨나면서 조선족이 이제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한다.

넷째 날은 인근에 있는 조선족 교회 14곳과 한족교회 두 곳을 방문해 기도하는 기회를 가졌다. 15명에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 18개의 신학대학이 있으며, 길림성에도 신학대학이 있어 목사를 배출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인정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도 천주교, 불교, 회교, 이슬람교, 도교 등 모두 5개 종교이다.

다섯째 날은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삼일 예배를 보았고, 틈을 내어 시장구경도 하였다. 시선 끄는 것을 꺼려 사진은 주로 실내에서 찍었다. 마지막 날에는 평가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허리까지 올라오는 얼음장 같이 찬 강을 건너, 택시 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집사님 한분은 간증하기를 "나는 공산당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를 믿어야 하겠으니 당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당에 진정하였다고 한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전도부인 훈련은 단순 '구제' 차원을 넘어,
"능력 배양(Empower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선교를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 지원' 구제 활동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
선교지 여성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변화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전도부인 훈련의 취지이다.**

전도부인 훈련

전도부인 훈련은 단순 '구제' 차원을 넘어, "능력 배양(Empowering)"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선교를 펼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단순 지원' 구제 활동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 선교지

여성들의 능력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변화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전도부인 훈련의 취지이다.

이번에 우리가 한 전도부인 교육은 1월에 받은 훈련 내용에 따른 것으로, 그림을 이용해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이끄는 “FAMA 방식”을 사용했다.

먼저 건강과 위생 교육에 관해서는 청결, 질병 예방, 영양 상태 등 건강관리가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이며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점을 공부했다. 경제 자립에 관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갖고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평가한 후, 소그룹으로 나뉘어 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매상, 옥수수 재배, 비누공장 등 구체적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실제적인 일이기에 관심이 대단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여러 차원에서 생기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공부했다. 특히 가정 폭력 문제를 다룰 때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전도부인 교육을 통해 준비해 가지고 간, 위의 내용들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본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역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이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조선족 선교에 대한 비전

중국에서 돌아오면서 인구나 방대한 땅을 감안할 때 중국이 21세기 선교의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며, 중국어에 능통하고 토착화된 조선족이 한족과 다른 소수민족 선교에서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막 조선족 선교에 동참하게 된 미 한인여선교회의 역할은 그지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 특히 한국 여성들을 이 선교를 위하여 불러 쓰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

* 이 글은 한인여선교회 소식지 2006년 6월호에 실렸던 것이다.